

사자(獅子)의
판(判)짓

우리는 갯벌연인 “고기를 잡으로 바다로 갈까나”



폭폭 찌는 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달력을 뒤적이며 휴가 계획을 세우는 직장인이나, 좁은 교실에서 더위와 씨름하는 학생들에게나 바다가 그리워지는 여름입니다.

지난주 장흥 대덕을 신리로 바다를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 본 풍경은 출렁이는 파도와 함께 드넓게 펼쳐진 바다가 아니라 형태를 알아 볼 수 없는 사 람들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흙을 뒤집어 쓴 연인이 다정하게 갯벌을 거닐고 있습니다. 보는 이들 입 껍벌어지게 하는 연인의 모습이지만 얼굴에 미소를 띠며 그들을 매고 갯벌을 유유히 산책하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이 이상한 여름 풍경은 장흥 '개매기' 체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개매기'는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바닷가 갯벌에 그물을 쳐 놓은 뒤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 떼를 쓸물 때 잡는 전통적인 고기잡이 방법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개매기' 체험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은 그물을 들고 이리저리 고기 떼를 쫓으며 신이 났습니다. 미끌거리는 갯벌에서 넘어지는 일도 다반사. 옷 몸이 진흙투성이가 돼도, 고기의 모습은 온대 간대 없이 그물에 바닷물만 넘실거리며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여름이지만 '이열치열' 자연 속에서 온몸으로 여름을 느끼보는 것도 더위에 맞서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장흥=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오늘의 유머

■사냥꾼의 대화

두 명의 꿩새기 사냥꾼이 사슴 한 마리를 잡아 트럭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사냥꾼이 돌을 보며 한마디 했다. “내가 남의 일에 참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사슴을 반대쪽으로 끌고 가면 뽕이 땅에 박히지 않아 쉽게 끌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두 사람은 그대로 해보기로 했다. 한참 사슴을 끌고 가다가 한 사냥꾼이 말했다. “그래, 그 친구 말이 옳아. 이렇게 끌고 가니까 훨씬 쉬운데 괜히 바보 같은 짓을 했군.”

그러자 다른 사냥꾼이 말했다. “그렇긴 한데 말이야. 이렇게 끌고 가니까 자꾸 트럭 있는 데서 멀어지는 걸!”

■투정

한 아이가 음식 투정을 하자 아버지가 말했다. “야야,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다. “아빠,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함께 사는 게 훨씬 낫지?”

■눈이 침침해서

골프를 좋아하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눈이 어두워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잘 보이지 않던 할아버지는 눈이 좋은 친구를 데리고 골프장에 갔다. 할아버지가 공을 친 뒤 친구를 돌아보며 물었다. “공 날아가는 거 봤지?”

“보고 말고, 정확히 봤지.”

“그래 어디로 날아갔나?”

친구가 대답했다. “잊어버렸어.”

■할아버지의 비결

젊은 여자가 산책을 하다가 미소를 짓고 있는 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 참 행복해 보이시네요. 할아버지처럼 오래래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난 하루에 담배를 세 갑씩 피운다. 그리고 술을 한 박스씩 마시고, 음식은 기름기가 있는 것만 먹소. 그리고 운동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네요. 그런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젊은 여자가 다시 물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서른둘이요.”

■부창부수

한 부부가 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이때 경찰차가 그들에게 다가와 차를 세우게 했다. 경찰이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편에게 말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계시더군요.”

“아니에요. 전 벨트를 매고 있었어요. 못 믿겠으면 차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경찰관이 아내를 보며 물었다. “그럼 부인께서 한 번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어요. 그 긴 세월을 보내며 제가 한 가지 터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남편이 술에 취했을 때는 절대로 그의 말을 반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럴 땐

가장대 강의 시간에 ‘집에서 간단히 알록을 지우는 법’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교수가 강의를 마치기 앞서 장난삼아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때 학생들은 남편의 와이셔츠에 루즈가 묻어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한 학생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유능한 변호사를 쓰셨어요.”

■잊어진 우산

우산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분실물 센터를 찾아 갔다.

그 사람이 우산을 찾으려왔다고 하자 센터 직원이 잃어버린 우산의 특징을 설명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검은색이고 손잡이에 금이 갔고 끈이 떨어진 우산이에요. 잊어진 곳이 한 군데 있고 살은 몇 개 휘어져 있어요.”

그러자 직원이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런 우산을 정말 찾았갈 생각이신가요?”

리빙 센스

신경안정·불면해소 기체조

- 손가락 쥐었다 펴기(300회 이상)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자세에서 양손을 가볍게 들고, 손바닥을 쥐었다 펴기를 빠른 속도로 반복한다. 팔은 움직이지 않고 손가락만 쥐었다 폼다 하는 것이 요령이며, 마음이 안정되고 신경이 이완된다.
- 온몸틀기(100회 이상)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자세에서 발바닥으로 몸의 나쁜 기운을 배출한다고 생각하며 발뒤꿈치를 들었다 놓았다 한다. 몸의 나쁜 기운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몸이 개운해진다.
- 팔 돌리기(각각 5회 이상)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자세에서, 원을 크게 그리듯이 뒤에서 앞으로 팔을 돌린다. 5회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몸이 편안해지며 어깨결림에도 좋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7월 8일(음 6월 6일 己酉)

子	36년생 인성이 다가오나 좋은 인연이 아니다. 48년생 좋은 하루다. 60년생 지루한 시간은 지나고 기쁨의 시간이 온다. 72년생 미운사람이 보이나 나에게 오히려 도움을 준다. 84년생 자신의 친구들도 살펴봐야 무탈하고 좋을 듯 하다. 행운의 숫자: 22, 16
丑	37년생 인생의 방향에 큰 변화의 기회가 생긴다. 49년생 여유 있게 보내면 오히려 기회는 속히 온다. 61년생 보수를 지키면 흥한 일은 피하리라. 73년생 작은 병도 잘 살펴봐라. 85년생 신중한 하루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04, 44
寅	38년생 협력자는 나타나지만 큰 도움은 못준다. 50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화는 없다. 62년생 흥한 일과 길한 일이 있지만 길한 편이다. 74년생 마무리를 잘하라 10%가 부족이 90%를 얻어간다. 행운의 숫자: 02, 43
卯	39년생 해묵은 감정을 버리면 새로운 정도 생기리라. 51년생 직장에서 처신만 조심하면 인기가 오른다. 63년생 속과 겉이 다른 일이 생기거나 차분하게 살펴야 좋으리라. 75년생 불행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19, 31
辰	40년생 초고는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52년생 문서상 예로가 발생하니 꼼꼼하게 살피라. 64년생 늦은 시간이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으나 믿을 내보라. 76년생 집에서는 말을 직장에서 행동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10, 42
巳	41년생 절대로 친구와는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53년생 잘못 권 단추가 끝까지 속 썩힌다. 65년생 눈물과 웃음이 있으나 나중에는 웃는다. 77년생 과도한 욕심이 없는 한 평안하다. 행운의 숫자: 15, 33
午	42년생 친구 같은 부자지간의 시간을 가져라. 54년생 남녀사이 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만나라. 66년생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 78년생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13, 41
未	43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손실이 없으리라. 55년생 삼사일언하면 약신도 피해간다. 67년생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살펴야 할 때이다. 79년생 정면 승부보다는 우회로 공격이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23, 43
申	44년생 마음을 단단히 가져라 대고 예상된다. 56년생 아무런 친구의 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68년생 힘의 인배를 고려하면 대고는 없으리라. 80년생 자신의 계주보다는 노력을 집중하면 실패는 없다. 행운의 숫자: 20, 39
酉	45년생 부부의 정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생긴다. 57년생 혼자서 바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69년생 흑시 하는 기대는 버리고 뜻을 분명하게 하라. 81년생 아들과 딸의 고민을 알아보라. 행운의 숫자: 24, 27
戌	46년생 이성으로 마음이 헛갈리니 중심을 찾아라. 58년생 울고 싶은 일이 생기나 어려운 일은 아니다. 70년생 순리대로 행동하면 결과도 좋으리라. 82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고민했던 일들이 풀려갈 것이다. 행운의 숫자: 18, 32
亥	47년생 모르는 사람과 시바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59년생 오래 동안 생각한 것을 결정해도 좋다. 71년생 쌓아온 명성이 자기 입으로 무너질까 걱정된다. 83년생 비 구수수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12, 30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제17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지역대회

빠이픈 한방

3회전 2국 5보 (83~97)

白 허우석 5단 (북구청) 黑 이한재 5단 (조선대)

백 ㉔가 '석점'의 중앙'에 해당하는 모양의 급소로 매우 아픈 곳이다. 흑이 세력을 펴야 할 곳이 거꾸로 공격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한재 5단은 쓴맛을 다시며 흑 83으로 붙어 일단 시는 모양을 찾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듯 자못 기세가 등등하다. 노타임으로 84로 찢어며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이제와서는 흑도 85로 끊을 수밖에

없고 허우석 5단은 ㉔를 사석으로 하여 86, 88로 아깝없이 몰아버린 다음 90에 있다. 보통 때 같으면 이것은 좋은 작전이다. 그러나 지금은 백 여섯점이 못살아 있다는 것이 문제다. 흑 91이 빠이픈 한방으로 막상 이곳을 얻어맞고 보니 아프기 짝이 없다. 백 86으로는 '참고도'의 백 1로 가 만히 붙어야 했다. 흑은 2로 몰 수박에 없는데 5까지 바꿔치기를 하면 백이 우세를 굳힐 수 있었다. 실전엔 흑 97까지의 집중포화에 백이 위기에 몰린 장면이다.

<요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창호, 후지쓰배 준우승

이창호 9단이 7일 일본기원에서 열린 제21회 후지쓰배 세계바둑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 중국의 구리 9단에게 205수 만에 불계로 패배했다.

1998년 후지쓰배 우승자인 이창호는 10년 만에 왕좌 복귀를 노렸으나 지난해 박영훈 9단에 결승에서 패배한 데 이어 2년 연속 우승 문턱에서 부문을 삼켰다.

또 이창호의 패배로 한국의 후지쓰배 연속 우승 기록도 '10'에서 멈췄다. 구리는 춘란배에 이어 후지쓰배 우승으로 세계대회 2관왕에 오르면서 세계대회 4관왕인 이세돌과 양강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198>

What was John saying?

존이 뭐라고 말했나?

A : What was John saying?
B : Oh, nothing.
A : Come on, tell me.
B : Okay, but don't scream. I think he wants to call you.

A : 존이 뭐라고 말했나?
B : 아, 별짓 아닙니다.
A : 이봐, 말해봐.
B : 알았습니다. 하지만 호통치지 마십시오. 그가 전화를 할 것입니다.

* 선생님은 그 분과 함께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I think you should go with him.
* 저에게 그 편지를 타이핑해주시면 합니다.
= I think you should type the letter for m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98>

日本語の學校に行っています。

일본어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A : 金さんは毎日(まいにち)どのように(どう)暮(く)らしていますか。
B : 日本語の學校に行っています。それから夜(よる)にはレストランへ行(い)ってアルバイト(アルバイト)もしています。
A : それじゃ、なかなか忙(いそ)がしいですね。
B : ええ、わりと忙(いそ)がしいです。

A : 김 씨는 매일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B : 일본어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레스토랑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A : 그렇 상당히 바쁘군요.
B : 예, 비교적 바쁩니다.

どのように: 어떻게, 어떤 식으로
暮(く)らす: 살다, 생활하다
わりと: 비교적, 다른 것에 비해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175>

难不难?

어렵니?

A: 汉语难不难?
Hányǔ nán bu nán?
한위 난 부 난?
B: 不太难。
Bù tài nán.
부 타이 난.
A: 汉语好学吗?
Hányǔ hǎo xué ma?
한위 호수 호학 마?
B: 汉语好学。
Hányǔ hǎo xué.
한위 호수 호학.

A: 중국어 어렵니?
B: 별로 어렵지 않아.
A: 중국어 배우기 싫니?
B: 배우기 쉬워.

难 [nán] 어렵다

<광주중국어학원(삼우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815>

書算(서산)

글서, 셀산

서산(書算)은 한문책을 읽을 때 읽은 횟수를 세는 도구이다. 종이로 봉투처럼 만들어 표면에 두 층으로 눈을 다섯씩 엮어서 그 눈을 집었다 폼다 하여 책을 읽은 횟수를 세는 종이 계산기로 '산표(算表)' '서수(書數)'라고도 불렀다.

'서산'을 공을 들여 만들기도 하지만, 대개는 종이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독서하는 선비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었고, 책을 읽을 때는 많이 활용하였다. 서산을 보면 그 책 주인의 독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정조(正祖)가 읽던 '주역'속에서 발견된 서산은 종이가 부풀어 너덜너덜해져 있었다고 한다. 정조의 독서력을 입증해주는 서산 앞에 많은 신하들이 숙연해졌을 것이다.

예전에 서당에서는 배운 것을 소리 내어 반복 학습하는 송독(誦讀)을 시켰다. 날마다 학동의 실력에 맞게 범위를 정하여 배우고, 그날의 학습량은 숙독하여 서산(書算)을 놓고 읽은 횟수를 세는데 보통 1회의 독서량은 100독(百讀)이었다. 서산을 사용하여 독서한다는 것은 심신을 가다듬고 단정하게 앉아 속독(熟讀)한다는 의미도 있다. 반면 가벼운 독서에는 서산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홍대용은 불경(佛經)을 읽으면서 서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